

# 축 사

'22. 12. 2.(금) 9:0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한국ESG기준원에서 주최하는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ESG기준원 심인숙 원장님,

그리고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  
코스콤 홍우선 사장님을 비롯한  
사원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우수기업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Ⅱ.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자본을 제공한 주주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에 자본을 제공한 외부 주주에게 투자의 대가를 공정하게  
되돌려 주는 절차를 의미 (Shleifer and Vishny, 1997)

외환위기('97) 이후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공시제도 개선, 회계 개혁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다방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제도적 기반 위에  
기업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더하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도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많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Ⅲ. 새로운 도전과제 : ESG

---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현장의 관행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불투명한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과거 기업지배구조(G)에 한정되었던 논의가  
환경(E)과 사회적 책임(S)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Net-zero) 경제’로의 전환,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를 고려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召命)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 요구가  
기업의 손발을 과도하게 묶지는 않은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EU) 기업의 ESG공시의무 강화(‘22.11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확정 → ‘24년 시행)  
기업의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초안 발표(‘22.2월))  
(美)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22.3월)

이와 같은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문제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입니다.

## IV. 향후 정책방향

---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선진시장에 부합하도록  
넓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2023년중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 ('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예: '21년 기준 약 93개사)  
→ ('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예: '21년 기준 약 234개사)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제, 국내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낡은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지원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성원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 ESG기준원」과 함께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ESG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ESG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 :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 쉐 코스피 상장사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인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ESG 관련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겠습니다.



## V. 맺음말

---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탄소 경제에서 탄소 제로(Net-zero) 경제로의 이행,  
세계화의 퇴조에 따른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같은  
그간의 안온(安穩)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transition)을 시도중입니다.

\* 예: 미국-중국간 무역분쟁, 경제블록간 디커플링(De-coupling) 가속화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이나,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경우  
경쟁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예 :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산업수요 증가 → 신규시장 진출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기업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